

Morning Meeting Brief

THE GLOBAL / Global Daishin View

[Global Daishin View] 2026 년 9 월 1 주차

- 美 증시, 3일 발표되는 8월 고용지표 주목. 분위기 반전 도모 기대
- 즈푸AI 등 中 33개주, MSCI 중국지수 정식 편입. 엔비디아, AI 투자 사이클 지속성 재확인. 디지털리얼티, 빅테크 장기임차 확대
- 이번 주 해외 투자 포커스: [신흥국전략] Global X China Robotics and AI ETF, [미국주식] 엔비디아, [글로벌리츠] 디지털리얼티

글로벌전략 문남중, AI Engineer 조재운, 글로벌리츠 김다은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대외 악재 속 KOSPI 지탱한 기타법인 순매수

- 대외 부담에도 반도체 강세 전환, 기타법인 순매수 지속
- 매파적 잭스홀과 미국-이란 충돌, 대외 경계감 확대
- 대외 불확실성 속 저평가 업종으로 순환매 확산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ssue Comment] 롯데렌탈: 점유율 확대 가능성 부각

- 점유율 2위인 SK렌터카의 경쟁력(국내 렌탈시장)에서 불확실한 환경 부각
- 3Q26 매출은 최고 및 영업이익은 3Q22년 이후에 최고 예상
- TPG로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종합 렌탈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 중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Issue Comment] 비에이치: 폴더블폰(애플,삼성) 그리고 로봇에서 신성장을 확보!

- 애플 폴더블폰 출시, 글로벌 시장 확대의 계기로 실적 호조 및 수혜 예상
- 삼성디스플레이의 모바일향 설비투자 재개, 폴더블폰에 적극 대응 해석
- 신성장 사업 확보 : 폴더블폰 시장 확대 + 로봇, 휴머노이드 고객 확보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Company Report] 저스텍: 2027 년 영업이익 500 억을 향하여

- 글로벌 IDM을 중심으로 습도, 분자오염(AMC)을 제어하는 반도체 수율 개선 업체
- 2세대 JFS 확산과 3세대 고ASP 제품 진입으로 체급 상승 구간 진입
- 실적으로 확인된 성장, 2027년에도 이어진다

김아영. ahyoung.kim @daishin.com

- [클래스스]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다
- [저스텀] 2027년 영업이익 500억을 향하여
- [프로텍] 자회사 턴어라운드, 본업도 실적 개선으로 업사이클

THE GLOBAL

Global Daishin View

글로벌전략 문남중
AI Engineer 조재운
글로벌리츠 김다은

2026년 9월 1주차

- 美 증시, 3일 발표되는 8월 고용지표 주목. 분위기 반전 도모 기대
- 엔비디아, AI 투자 사이클 지속성 재확인. 디지털리얼티, 빅테크 장기임차 확대
- 주식 포커스: Global X China Robotics and AI ETF, 엔비디아, 디지털리얼티

[글로벌전략] 2가지 빅 이벤트 이후..미국 증시, 3일 발표되는 8월 고용지표 주목. 증시 분위기 반전 도모

2가지 빅 이벤트를 잘 소화함에 따라 미국 증시는 9월 3일 발표되는 8월 고용지표에 주목할 것.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는 2/4분기 GDP 수정치,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수 고용추세, 6~7월 CPI&PCE 등 성장 둔화와 물가 하락을 나타냄.

8월 고용지표가 7월에 이어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로 연결될 경우, 최근 케빈 워시 연준의장 발언에 대한 확대해석 경계,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대비한 헤지 움직임이 증가할 것.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하락했던 금 가격이 7월 바닥을 다지고 8월부터 상승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

[신흥국전략] Global X China Robotics and AI ETF: 즈푸AI 등 中 33개주, MSCI 중국지수 정식 편입

MSCI는 8월 12일 8월 정기 지수 검토 결과를 발표, 중국 AI 거대언어모델(LLM) 스타트업 즈푸AI(智譜華章Z.AI 2513.HK)를 포함한 중국 주식 33종목이 MSCI 중국 지수에 새롭게 편입되고, 32종목 제외. 이번 변경 사항은 8월 31일 중국 증시 장 마감 후부터 적용. 특히 즈푸AI는 이번 MSCI 신흥국지수 신규 편입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 기준 최대 규모. 이번 신규 편입 종목에는 반도체 장비·소재, 제약, 신소재, 전자부품 등 중국의 첨단 제조업 및 기술기업들이 다수 포함. 이번 정기 조정은 중국 AI 및 첨단 제조업 대표 기업에 대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편입 효과 기대

[미국주식] 엔비디아(NVDA): 2분기 실적·3분기 가이던스 서프라이즈로 나스닥·S&P500 동반 강세, AI 투자 사이클 지속에 대한 시장 재확인

2분기 매출 962억 달러로 전년대비 106% 증가, 3분기 매출 전망도 컨센서스 상회. 데이터센터 비중 92.5%로 집중도 상승, 26회계연도 매출 70% 성장 전망 제시. 주가는 예상이익의 19.1배로 5년 평균 35.2배의 절반 수준, 저평가 매력 부각. 3분기 마진 전망 74%로 하향, 메모리 원가·현금흐름 213억 달러 반토막 확인

[글로벌리츠] 디지털리얼티(DLR): 빅테크 장기임차 확대로 성장 가시성 강화

미국 빅테크 5개사의 미개시 리스 약정액(계약은 체결됐으나 아직 시설 사용이 시작되지 않은 리스) 약 1.1조 달러, 상당 부분이 데이터센터 관련 계약. AI투자 확대가 제3자 데이터센터 장기임차로 확산→데이터센터 리츠 전반에 우호적이며 대형 hyperscale 비중이 높은 DLR의 수혜 기대. DLR의 2Q26 미개시 임대계약도 연환산 임대료 19억달러로 사상 최대 → 향후 임대 개시에 따라 매출·FFO로 순차 전환 예정. 12MF P/FFO 약 23배로 프리미엄 구간이나 높은 백로그와 FFO 성장 가시성이 밸류에이션 지지

대외 악재 속 KOSPI 지탱한 기타법인 순매수

- 대외 부담에도 반도체 강세 전환, 기타법인 순매수 지속
- 매파적 잭스홀과 미국-이란 충돌, 대외 경계감 확대
- 대외 불확실성 속 저평가 업종으로 순환매 확산

대외 부담에도 반도체 강세 전환, 기타법인 순매수 지속

최근 엔비디아의 견조한 실적을 통해 AI,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는 완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엔비디아(-4.6%), 마벨(-10.3%) 등 약세 미국 AI, 반도체주 약세가 국내 증시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며 반도체 중심 하락 출발.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을 위한 기타법인 장내 매수 물량이 꾸준히 유입되며 증시 하방을 지지. 금일 기타법인은 삼성전자 5,098억원, SK하이닉스 1조 357억원 순매수하며 강세 전환 주도. 주주환원 정책 발표 이후 누적 순매수 규모는 삼성전자 3조 614억원, SK하이닉스 8조 6,564억원으로 확대

익일 발표되는 한국 8월 수출에 대한 기대도 유효. 앞서 8월 1~20일 수출은 전년 대비 +56%, 반도체 수출은 +199% 증가하며 국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을 뒷받침
반도체: 삼성전자(+1.2%, 저가 -4.3%), SK하이닉스(+1.3%, 저가 -4.6%)

매파적 잭스홀과 미국-이란 충돌, 대외 경계감 확대

잭스홀 미팅에서 워시 의장은 7월 물가지표 둔화에도 기초적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다고 평가. 또한 물가가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가지 않는다면 추가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언급

시장에서는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확대. CME FedWatch 기준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약 60%까지 상승하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
한편 미국과 이란은 약 한 달 만에 군사행동을 재개. 미군은 현지시간 30일 이란 남부 라라크섬의 이슬람혁명수비대 로켓 발사대 2곳을 타격했고, 이란도 즉각 반격에 나서 요르단 내 미군기지 2곳을 공습. 이에 WTI 선물이 재차 85달러를 돌파하면서 증시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

대외 불확실성 속 저평가 업종으로 순환매 확산

대외 변수에 투자심리 위축된 가운데, 저평가 업종으로 저가매수세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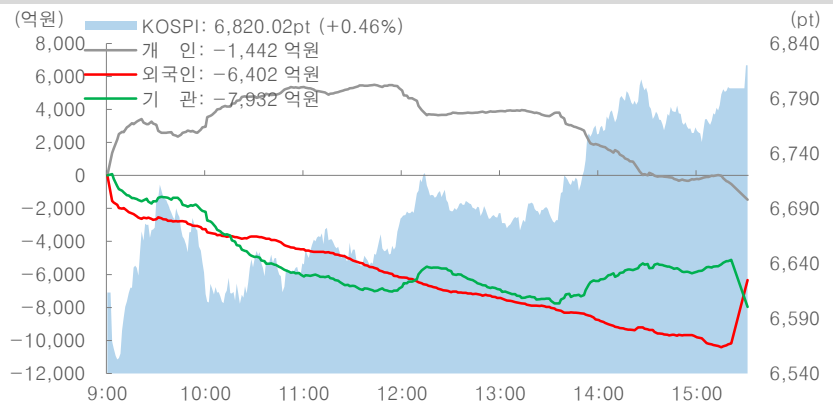
2차전자: 엘앤에프(+8.8%), 포스코퓨처엠(+7.6%), LG에너지솔루션(+2.2%)

소비재: 롯데쇼핑(+4.2%), 호텔신라(+2.6%), 신세계(+2.1%), 현대백화점(+2.1%)

전력기기: 효성중공업(-6.0%), HD현대일렉트릭(-4.1%), LS ELECTRIC(-3.3%)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4.8%), LIG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5.5%)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롯데렌탈 (08986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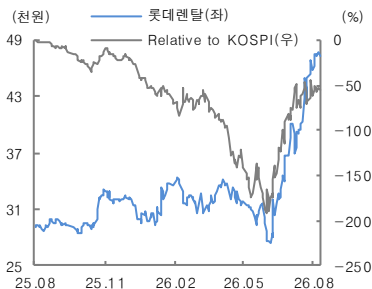
(26.08.31)

47,35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6820.02
시가총액	1,71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3%
지분금(보통주)	183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7,700원 / 27,3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9억원
외국인지분율	6.48%
주요주주	호텔롯데 외 6 인 61.21% 브이아이피자산운용 7.3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0.3	51.5	40.3	64.4
상대수익률	16.4	88.3	28.4	-23.2



Issue Comment

점유율 확대 가능성 부각

- 점유율 2위인 SK렌터카의 경쟁력(국내 렌탈시장)에서 불확실한 환경 부각
- 3Q26 매출은 최고 및 영업이익은 3Q22년 이후에 최고 예상
- TPG로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종합 렌탈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 중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60,000원 유지

롯데렌탈, 2027년 국내 렌터카(렌탈) 시장에서 점유율이 추가로 확대, 이익 및 배당 증가 가능성이 부각될 전망. 최대주주의 변경(롯데에서 글로벌 사모펀드인 TPG로 인수)되면서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B2B 포트폴리오로 강화가 예상

중요한 점은 이전에 롯데렌탈 인수를 추진하였던 어피니티 에퀴티파트너스(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점유율 2위인 SK렌터카의 최대주주)가 롯데렌탈의 인수가 무산(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수 불허)되면서 SK렌터카의 경쟁력 확대에 불확실한 환경 부각된 것으로 판단. 만약 어피니티가 롯데렌탈의 인수 무산으로 SK렌터카에서 엑시트(지분 매각)를 추진한다면 상대적으로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의 위상이 강화될 전망. 장기적으로 국내 렌터카 시장(장단기 등)에서 점유율 확대는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연결, 그리고 배당 증가로 수반하면서 기업 가치는 높아질 전망. 투자 의견은 매수(BUY) 및 목표주가 60,000원(2027년 EPS 기준, 목표 P/E 13.2배 적용) 유지. 투자 포인트는

9월 성수기 진입 / 3Q26 매출과 영업이익은 최대 예상

2026년 9월,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성수기 진입(추석 및 10월초 연휴/개천절, 한글날), 중고차 렌터카(렌탈)의 비중 상향전체 장기 렌탈 내 20% 상회 / 신차 장기 렌탈에 비해 단가가 낮고 수익성이 높음)을 반영하면 2026년 3Q 영업이익은 933억원(4.8% yoy/10.2% qoq), 매출은 7,900억원(4.2% yoy/3.2% qoq)으로 추정. 분기 기준의 최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2022년 3Q(940억원) 이후에 최대 예상. TPG로 최대 주주가 변경 이후에 첫 분기(3Q26)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 인수 가격(주당 59,000원) 및 인수 배경에 정당성을 부여, 그 이상의 가치를 확인할 계기로 판단

최대주주로 전환된 TPG는 롯데렌탈이 보유한 오토플랫폼, 카셰어링(그린카) 자산을 활용해 장단기 렌터카 사업과 연관된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 비전을 제시. 중고차의 B2C 자사몰에 직접 판매 확대 및 차량 유지 보수(MRO) 연계 서비스 확장으로 중장기 영업이익률 개선에도 초점, 긍정적인 평가 요인으로 판단

(단위: 십억원 %)

구분	3Q25	2026	직전추정	당사추정	3Q26(F)			4Q26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758	766	790	790	4.2	3.2	784	792	9.0	0.2
영업이익	89	85	93	93	4.8	10.2	92	91	15.2	-2.0
순이익	39	20	46	46	16.6	131.3	40	43	51.4	-4.8

자료: 롯데렌탈,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비에이치 (09046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1,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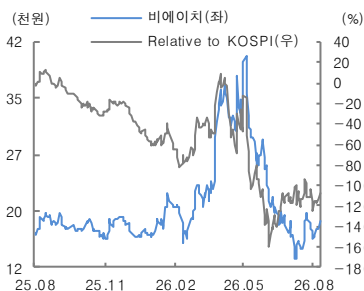
18,230

(26.08.31)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6820.02
시가총액	61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1%
자본금(보통주)	1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0,200원 / 13,1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89억원
외국인지분율	11.19%
주요주주	이경환 외 6 인 21.60% 국민연금공단 13.3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1.0	-40.5	-5.7	-1.4
상대수익률	17.0	-26.1	-13.7	-53.9



폴더블폰(애플,삼성) 그리고 로봇에서 신성장을 확보!

- 애플 폴더블폰 출시, 글로벌 시장 확대의 계기로 실적 호조 및 수혜 예상
- 삼성디스플레이의 모바일향 설비투자 재개, 폴더블폰에 적극 대응 해석
- 신성장 사업 확보 : 폴더블폰 시장 확대 + 로봇, 휴머노이드 고객 확보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41,000원 유지

2026년 9월에 주가의 반등, 상승을 기대. 애플이 폴더블폰을 공개 및 출시,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폴드8(여권 형태의 폴더블폰을 신규 출시) 흥행 호조를 반영하면 2027년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 확대에 애플, 삼성전자의 핵심 공급업체인 비에이치의 수혜가 예상. 그리고 로봇/휴머노이드에서 신규 거래선(북미)의 추가를 예상 등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판단. 2026년 P/E 5배로 역사적 저점, 저평가로 판단,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41,000원(2027년 주당순이익 x 목표 P/E 14.5배, 실적호조 시기에 평균), 비중확대를 유지

애플이 폴더블폰 출시 : 폴더블폰 성장 확대의 계기, 수혜 예상

2026년 하반기, 삼성전자의 신규 모델인 갤럭시폴드8 판매가 호조를 보임. 유사 형태인 애플의 신규 폴더블폰이 9월 10일(한국시간) 공개 이후에 9월말 순차적으로 출시를 예상. 갤럭시폴드8과 유사한 애플의 폴더블폰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이전 아이폰 모델대비 높은 가격이 예상되나 새로운 라인업 및 AI 전략의 강화(구글 제미니와 협력) 관점에서 폴더블폰 판매는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존재. 삼성전자, 애플향 폴더블폰 OLED 디스플레이를 독점적으로 공급한 삼성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설비투자 재개(아산단지 A7 OLED 신공장 건설)를 발표하면서 2027년 이후에 폴더블폰 시장 확대가 전망. 폴더블폰 시장은 2025년 2,032만대(+9% yoy)에서 2026년 2,610만대(+28.4% yoy), 2027년 3,537만대(+35.5% yoy)로 급격한 성장을 예상. 삼성디스플레이는 모바일향 투자를 5년만에 2026년 재개, 2028년초에 완공, 예정. 삼성전자는 2027년 폴더블폰의 모델이 종전 3개에서 5개, 애플 아이폰은 연간 1,500만대 이상의 판매로 성장, 점유율 1위로 부상할 전망

2026년 9월, 로봇/휴머노이드 사업에서 신규 거래선 추가를 예상. 그러면 이미 매출을 기록한 보스턴다이나믹스(아틀라스) 기반으로 삼성전자를 확보하였고, 글로벌 로봇/휴머노이드의 고객이 추가될 전망. 비에이치는 차량용 무선충전 모듈과 디스플레이용 R/F PCB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휴머노이드에 공급 확대를 추진. 또한 로봇/휴머노이드의 관절 유연성과 원가 절감 차원에서 장축의 연성PCB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27년 이후에 신규 매출 반영을 예상

2026년 전체 매출(1.87조원)과 영업이익(950억원)은 각각 4.2%(yoy), 76%(yoy)씩 증가를 예상. 실적 호조 및 밸류에이션의 저평가, 그리고 로봇/휴머노이드로 사업 다각화 추진을 반영하면 9월에 주가 반등, 상승을 기대

(단위: 십억원 %)

구분	3Q25	2026	직전추정	당사추정	3Q26(F)			4Q26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562	414	533	533	-5.2	28.7	554	549	8.1	3.0
영업이익	34	8	37	37	7.7	370.6	40	39	36.4	5.9
순이익	38	9	31	31	-17.9	247.1	36	33	68.1	4.8

자료: 비에이치,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저스텍

(417840)

김아영

ahyoung.kim@daishin.com

투자의견

N/R

6개월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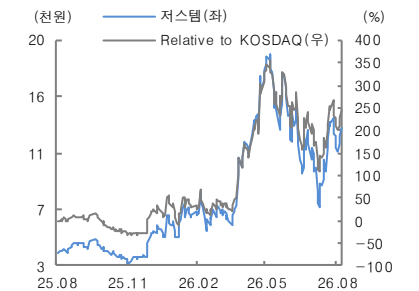
(26.08.28)

13,900

스몰캡업종

KOSDAQ	834.29
시가총액	3,179억원
시가총액비중	0.05%
자본금(보통주)	36억원
52주 최고/최저	18,990원 / 3,013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68억원
외국인지분율	3.24%
주요주주	임영진 외 7 인 26.9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6.5	-25.6	82.0	244.5
상대수익률	31.8	-2.0	158.9	228.1



2027년 영업이익 500억을 향하여

- 글로벌 IDM 중심으로 습도, AMC 제어하는 반도체 수율 개선 업체
- 2세대 JFS 확산과 3세대 고ASP 제품 진입으로 체급 상승 구간 진입
- 실적으로 확인된 성장, 2027년까지 이어진다

글로벌 IDM 중심의 반도체 수율개선 '습도, AMC 제어' 솔루션 업체

저스텍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FOUF, EFEM 구간의 습도 및 분자오염(AMC)을 제어해 수율을 개선하는 N₂ Purge 기반 환경제어 시스템 전문 업체. 1H26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은 반도체 95.8%, 디스플레이 3.2%, 태양광 0.4%, 2차전지 0.2%. 주요고객은 글로벌 IDM 업체로 상위 3개 고객사가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 핵심 제품군은 LPM, CFB, JFS이며 HBM용 Hybrid Bonder 개발 등 첨단 패키징 장비로 포트폴리오를 확장

기존 Fab 침투율 확대에서 신규 Fab, JDM까지, 성장 모멘텀 본격화

- 1) 신규 Fab 없이도 커지는 JFS 침투율: Micron·삼성전자 기존 Fab향 JFS 양산 적용 확대, SK하이닉스도 평가 진행 중. HBM·선단공정 전환에 따른 수율 개선 투자는 기존 Fab 내 JFS 설치 확대로 2026~2027년 성장 견인
- 2) 2027년 신규 Fab + 고ASP JDM으로 성장 레벨업: 2027년 SK하이닉스 용인·Micron ID1·삼성전자 P5 등 신규 Fab 효과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Micron에서 평가 중인 고ASP JDM의 신규 수주 가능성도 존재. 설치 기반 확대와 제품 믹스 개선이 맞물리며 외형과 수익성의 동반 성장 기대

실적으로 확인된 성장, 2027년까지 이어진다

2Q26년 매출액은 293억원(+159.8% YoY), 영업이익은 93억원(+350.6% YoY)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을 시현. N₂ Purge System과 JFS의 동반 성장에 따른 매출 확대와 고정비 부담 완화로 영업레버리지가 본격화. 2026년 매출액 1,187억원(+145.8% YoY), 영업이익 347억원(+649.0% YoY)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Micron 기존 Fab향 N₂ Purge System 및 JFS 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2027년은 주요 고객사의 신규 Fab 가동과 고 ASP 신제품 PO에 따른 지속성장 이어질 것으로 예상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억원, 원, %)

	2023A	2024A	2025A	2026F	2027F
매출액	359	387	483	1,187	1,603
영업이익	3	-46	46	347	528
세전순이익	-48	-32	32	366	548
총당기순이익	-34	-22	35	293	438
지배지분순이익	-34	-21	35	293	438
EPS	-486	-302	489	1,283	1,917
PER	NA	NA	11.9	10.4	6.9
BPS	2,307	2,255	2,448	3,587	5,495
PBR	5.8	5.9	5.4	3.7	2.4
ROE	-6.8	-4.4	6.9	35.8	34.9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저스텍,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대신 신성장산업

박장욱
한송협
김아영
김진형

jangwook.park@daishin.com
songhyeop.han@daishin.com
ahyoung.kim@daishin.com
jinhyung.kim@daishin.com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클래시스	Buy	60,000원
저스텍	Not Rated	Not Rated
프로텍	Not Rated	Not Rated

9월 Top-Picks: 클래식스, 저스텍, 프로텍

- [클래시스]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다
- [저스텍] 2027년 영업이익 500억을 향하여
- [프로텍] 자회사 턴어라운드, 본업도 실적 개선으로 업사이클

[클래시스]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다

2Q26 매출 1,055억원으로 첫 분기 1,000억원 돌파

국내 회복과 브라질 재고 정상화로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

2027년 중국 볼뉴머 출시와 해외 소모품 성장으로 이익 성장 재가속 기대

[저스텍] 2027년 영업이익 500억을 향하여

글로벌 IDM 중심으로 습도, AMC 제어하는 반도체 수율 개선 업체

2세대 JFS 확산과 3세대 고ASP 제품 진입으로 체급 상승 구간 진입

실적으로 확인된 성장, 2027년까지 이어진다

[프로텍] 자회사 턴어라운드, 본업도 실적 개선으로 업사이클

자회사 피엠티 턴어라운드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66.4% 개선 전망

반도체 패키징이 고성능화될수록 신규 장비 LCB가 부각될 수 있음

신규장비 포트폴리오 확장까지 고려 시, 관심 필요한 구간 위치

실적 전망

(단위: 십억원, %, 배)

	클래시스		저스텍		프로텍	
	26F	27F	26F	27F	26F	27F
시가총액	2,208		318		546	
매출액	443	578	118	160	277	319
%yoy	31.5	30.6	145.8	35.1	20.2	15.3
영업이익	188	263	34	52	75	87
OPM(%)	42.4	45.4	29.2	32.9	27.3	27.5
순이익	145	191	29	43	59	67
ROE	24.5	27.4	35.8	34.9	15.8	15.6
PBR	3.5	2.9	3.7	2.4	1.5	1.2
PER	15.0	11.4	10.4	6.9	9.8	8.0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